



조선적십자병원 구강전문병동 구강수술장 준공 이수구 부회장·남구협 관계자 등 평양방문

치협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상임 의장 안성모·이하 남구협)가 남북 치의학 발전의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냈다.

이수구 부회장, 송요선 재무이사, 마경화 보험이사, 조영식 기획이사 등 치협 임원진으로 구성된 남구협을 비롯한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을지병원 관계자 84명은 11월 3일 전세기 편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이번 방북은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 구강전문병동 구강수술장 및 약무병동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준공식은 방북 이튿날인 11월 4일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서 이뤄졌다.

이수구 부회장을 비롯한 남구협 관계자 및 88명의 남측 방북단들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리충복 부위원장과 심일철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총원장 등 북측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구강수술장 및 약무병동 준공식에는 테이프 커팅식과 완공된 구강수술장과 약무병동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기념촬영을 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이수구 부회장은 "이번 구강수술장 완공식은 남북 협력 사업을 마무리 짓는 자리가 아니라 남북 협력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고 전제한 뒤 "북한 동포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치의학 학술 교류

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일철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총원장은 "남구협을 비롯한 남한 민간기관의 도움으로 약무병동과 구강수술장을 순조롭게 완공하게 됐다. 완공에 땀 흘린 양면으로 도움을 준 관계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준공식이 앞으로 더욱 많은 남북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북단 일행에는 이수구 부회장 등 남구협 일행을 비롯해 이영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본부장, 이동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박준영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총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사회 각 단체 주요 인사들이 방북단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준공식과 관련해 안성모 협회장(남구협 상임의장)은 "이번 구강수술장 완공은 남한의 치과계 가족이 북한 구강보건발전을 위해 남구협을 설립한 이래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에 하나"라고 전제한 뒤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구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상임의장은 "개성공단 이동 진료차 사업도 상당히 진척돼 있는 상황으로 남북 협력이 발전적으로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강보건팀 부활적극 돕겠다" 전윤철 감사원장 안성모 회장 면담서 밝혀

전윤철 감사원장이 복지부 내 구강보건팀이 부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크게 주목되고 있다. 안성모 협회장은 11월 9일 주동현 섭외이사와 함께 감사원장실을 방문, 11월 7일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임기 4년의 감사원장에 재발탁된 전 감사원장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안 협회장은 "정부에서 해야할 많은 구강보건 관련 정책을 치협이 맡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복지부 조직 개편 때 구강보건팀이 생활위생팀으로 흡수됐다"면서 정부의 조직개편 부당성을 지적했다. 안 협회장은 또 치협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치협

의 대 국민 노력을 소개하고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감사원장은 안 협회장의 발언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우리나라가 노령사회로 접어드는데 구강보건 전담 부서가 없어진 것은 잘못됐다. 구강보건팀이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감사원장의 이번 발언은 감사원 업무 좀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찾아 시정시키는 역할도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전 감사원장은 현 정부의 임기와는 상관없이 오는 2011년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원장직을 유지토록 돼 있어 추후 구강보건팀 부활에 있어 큰 우군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News
& News

구강보건팀 재설치·확대개편 등

차기 정부 인수위에 강력 촉구키로 / 치협 구발특위 회의

치협 구강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11월 16일 대선정책 제안서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구강보건관리 전담조직의 재설치와 확대개편 등을 차기정부의 인수위원회에 강력 촉구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에 적극 활용될 치협 정책건의사항의 최우선 과제가 결정됐다.

치협 구강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영·이하 구발특위)는 11월 16일 김재영 위원장, 조영식 간사, 전민용 치무, 이원균 공보, 김영주 보훈, 마경화 상근보험, 손정열 홍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선관련 구강보건정책 홍보 추진과 ▲정책연구소 설립·운영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위생팀으로 통폐합된 구강보건팀의 재설치 및 구강정책관 수준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사항을 중점 정책과제로 삼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많은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스케일링 전면 급여화, 노인들

니사업 확대 등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정하자는데 중지를 모았다.

조영식 간사는 이와 관련 "정책연구소는 '차기정부의 구강정책과제'를 첫 과제로 할 예정이며 동의한다면 곧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재영 위원장은 "구강관련과를 설치해도 복지부의 관심부재로 해체되고 중요성이 감소되는 일이 반복된다"며 "국민구강건강에 기여할 수 있고 복지부 관계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연구과제들을 계속적으로 맡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발특위는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정책토론을 열어 대선 후 꾸러질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차기정부의 구강정책과제'를 30쪽 내지 40쪽 분량의 총론으로 작성한 뒤, 세부과제에 대한 데이터를 보충한 각론을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총론과 각론은 정부나 정당이 요구하거나 필요로 할 때 배포될 예정이다.

News
& News

치·의·한의협 의료광고심의 공조

공동기구 '조정위' 본격가동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이하 조정위)'가 본격 가동된다. 각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상위기구인 조정위는 11월 16일 첫 회의를 열고 한형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함과 동시에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위원은 김철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7명으로 확정됐으며, 의협에서는 한형일 위원장과 허 감 영상의학회 전 이사장 등 2명이, 문병일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경권 변호사,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광고전문가 1명이 비의료인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장직은 순번제로 각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다.

조정위는 기존 각 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각 단체간 이견 등으로 결정되지 못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와 의료광고 심의기준 조정 등을 맡게 된다. 아울러 조정위는 분기별

로 정기모임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긴급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기로 했다.

11월 16일 첫 회의에서는 현재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매체인 지하철, 역사, 버스 광고 등에 대해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잠정 결정했으며, 심의 후 승인을 획득한 광고에 대해서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위법 사항 발생 시 이를 수정토록 하는 강제 규정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 김철수 위원(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각 단체별로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단체별 조율의 필요성이 대두돼 이와 같은 위원회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치과계 공동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형일 조정위 위원장은 "3단체 심의 기준이 달라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